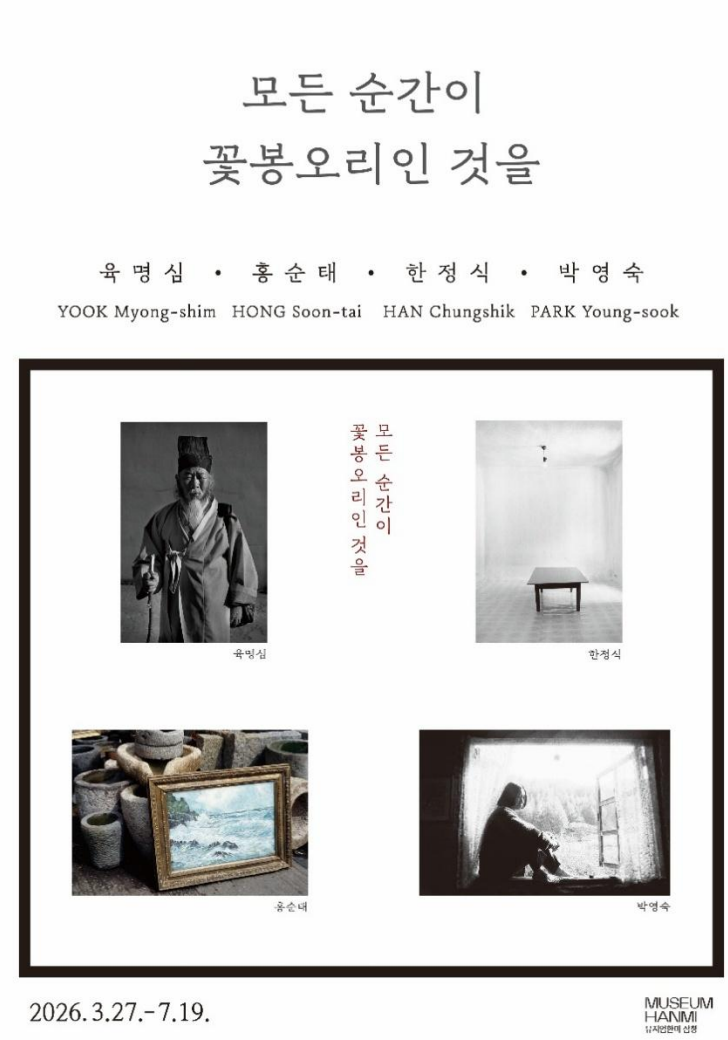
[보도자료]

뮤지엄한미 삼청본관 기획전

#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육명심·홍순태·한정식·박영숙》

2026. 3. 27. (금) ~ 7. 19. (일)




-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 한국 현대사진 거장 4인을 기리는 전시**
- **뮤지엄한미 소장품을 중심으로 육명심·홍순태·한정식·박영숙 주요 연작 소개**
- **한국 사진이 축적해온 시간의 결, 그 예술적 유산을 재조명**

# 전 시 소 개

■ **뮤지엄한미**(관장 송영숙)는 서로 다른 시선과 방법으로 한국 현대사진의 지평을 확장해온 사진가 육명심, 홍순태, 한정식, 박영숙을 기리는 기획전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육명심·홍순태·한정식·박영숙》**을 2026년 3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삼청본관에서 개최한다.

■ 이번 전시는 뮤지엄한미 소장품으로 구성된 전시로, 고(故) 육명심(1933–2025), 홍순태(1934–2016), 한정식(1937–2022), 박영숙(1941–2025)의 주요 연작 약 110 여 점을 선보인다. 인물과 자연, 기록과 성찰이라는 서로 다른 축 위에서 전개된 네 작가의 작업을 통해 한국 현대사진이 축적해온 시간의 결을 되짚어볼 수 있는 자리다.

■ 전시는 **육명심의 〈백민〉 연작**으로 시작한다. 육명심은 오랜 시간 한국인의 정서와 정체성을 탐구하며 우리 사회를 구성해온 다양한 인물 군상을 기록했다. 〈백민〉은 〈검은 모살뜸〉, 〈장승〉으로 이어지는 '우리 것 삼부작'의 첫 번째 작업으로, 농경사회의 모습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일상을 조명한다. 특히 이 작업은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던 시기와 맞물리며, 1970 년대 '한국적인 것'의 탐구 속에서 전통이 재조명되던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 다음으로는 **홍순태의 〈청계천〉과 〈서울〉 연작**을 통해 도시 서울이 겪어온 시간의 층위를 조망한다. 평생의 삶의 터전인 서울을 기록해온 홍순태는 1960 년대 청계천 판자촌의 생활 풍경을 비롯해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꾸준히 포착해왔다. 특히 〈청계천〉과 〈서울〉 연작은 약 반세기에 걸친 도시의 변화와 재건의 과정을 담아내며, 전통과 현대, 부조리와 화합이 중첩된 서울의 복합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 이어지는 지하 1층 전시장에서는 **한정식의 대표 연작 〈고요〉**를 소개한다. 한정식은 사진을 통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담고자 했으며, 자연과 사물에 집중하며 독자적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어진 〈고요〉는 피사체의 형상성을 넘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이는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과 차별화된 추상적 미학을 보여주며, 절제된 화면과 정제된 시선을 통해 자연의 고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사유와 성찰의 시간을 펼쳐 보인다.

■ 전시는 **박영숙의 〈36인의 포트레이트〉 연작**으로 마무리된다. 박영숙은 여성을 둘러싼 사

회적 현실과 억압에 주목하여 기존 관습과 구조의 부조리를 탐구해왔다. 〈36인의 포트레이트〉는 〈미친년 프로젝트〉와 함께 작가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 연작은 유방암이라는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계기로 작가 주변의 가까운 시인, 소설가, 교수 등 36인의 인물을 촬영한 연작이다. 동시대를 살아온 인물들의 얼굴을 깊이 있게 응시하며, 개별 존재의 삶과 그 배후에 흐르는 시대의 흐름을 상세히 기록했다.

■ 전시 제목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은 정현종 시인의 시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에서 영감을 받아 붙여졌다(정현종,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문학과지성사, 2018). 제목이 시사하듯 네 작가가 포착한 수많은 순간들은 여전히 피어날 가능성을 지닌 '꽃봉오리'처럼 오늘의 시선에서 다시 읽힌다. 이번 전시는 네 작가가 남긴 예술과 삶을 기리는 동시에, 그들이 바라보았던 세계가 오늘 우리의 감각 속에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 함께 발간되는 연계 도록에는 전시에 소개되는 각 작가의 연작 작품과 함께 작가노트가 실려 작업의 배경과 사유를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작가별 비평 글이 수록되어 작품의 미학적 특징과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 한편, 전시 기간 중에는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전시 투어 프로그램이 전시 기간 중 매달 1회 진행되며, 한국 사진사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작품을 새롭게 이해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네 작가의 작업을 중심으로 관람과 체험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술관 홈페이지(www.museumhanm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시 연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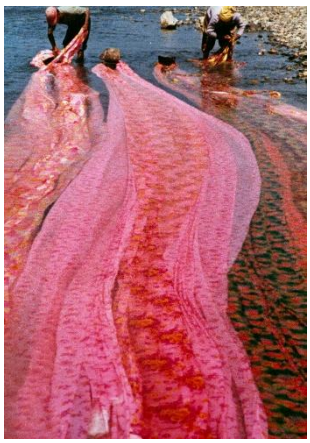
1. 전시 투어 프로그램 〈좌표 찾기: 우리는 이 사진을 어디에 둘 것인가〉
    - 개요: '생활주의 리얼리즘–형식주의 사진', '기록–표현' 등 한국사진사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관람객이 각 작가의 작업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위치화해보는 프로그램
    - 일시: 전시 기간 중 매달 1 회 진행(4-7 월, 총 4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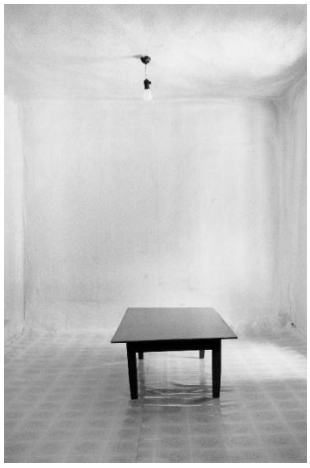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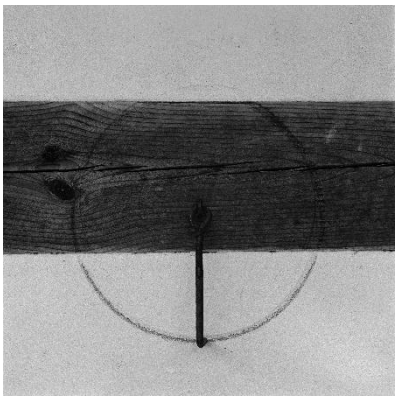
2. 작가별 어린이 프로그램
    - 개요: 한국 사진사의 주요 작가 4 인의 작업을 바탕으로, 관람과 활동을 통해 사진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교육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 육명심 작가 프로그램 〈흙을 기억하는 풍경〉: 흑백 사진 속 농촌의 삶과 정서를 살펴보고, 색 표현과 씨앗 심기 활동을 통해 자연과 삶의 감각을 확장해보는 프로그램
- 홍순태 작가 프로그램 〈시간이 쌓인 도시〉: 서울과 청계천의 변화 과정을 담은 작품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이미지를 비교하며 도시의 시간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프로그램
- 한정식 작가 프로그램 〈만지는 사진〉: 작품 감상 이후 촉각 중심의 활동을 통해 사물과 환경을 감각적으로 탐색하며 사진을 새롭게 인식해보는 프로그램
- 박영숙 작가 프로그램 〈나를 찍기 위한 방〉: 인물과 공간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직접 구성해보는 프로그램

※ 개별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미술관 홈페이지(www.museumhanm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용 이미지 목록

| No. | 작품 이미지 | 캡션 및 상세정보 |
|---|---|---|
| 1 | | 육명심, 〈강원도 강릉〉, 〈백민〉연작, 1983,<br>Gelatin silver print, 뮤지엄한미 소장 |
| 2 | | 육명심, 〈경상북도 안동〉, 〈백민〉연작, 1983,<br>Gelatin silver print, 뮤지엄한미 소장 |
| 3 | | 홍순태, 〈명동〉, 〈서울〉연작, 1970,<br>Gelatin silver print, 뮤지엄한미 소장 |
| 4 |  | 홍순태, 〈청계천〉연작,<br>Inkjet print, 뮤지엄한미 소장 |

| | | |
|---|---|---|
| **5** |  | 한정식,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 도갑사〉,<br>〈고요 III〉연작, 1986, Gelatin silver print,<br>뮤지엄한미 소장 |
| **6** |  | 한정식,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백담사〉,<br>〈고요 III〉연작, 2012, C-print, 뮤지엄한미 소장 |
| **7** | | 박영숙, 〈김금지, 연극배우〉,<br>〈36인의 포트레이트〉연작, 1981,<br>Gelatin silver print, 뮤지엄한미 소장 |
| **8** | | 박영숙, 〈최욱경, 화가〉, 〈36인의 포트레이트〉연작,<br>1981, Gelatin silver print, 뮤지엄한미 소장 |
| **이미지 요청 및 문의**<br>**김소정**<br>**02-733-1315**<br>press@museumhanmi.or.kr | | **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 웹하드 다운로드**<br>**www.webhard.co.kr**<br>**ID: hanmimuseum / PW: 1315**<br><br>**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br>**《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육명심·홍순태·한정식·박영숙》** |

# 전 시 개 요

**전시제목 :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육명심·홍순태·한정식·박영숙》**

**전시기간 :** 2026년 3월 27일(금) ~ 7월 19일(일)

**오프닝 리셉션 :** 4월 2일(목) 오후 2시 (*지평주조 협찬)

**전시장소 :** 뮤지엄한미 삼청본관(서울시 종로구 삼청로9길 45)

**전시작품 :** 사진 110여 점

**주　　최 :** 뮤지엄한미

**주　　관 :** 뮤지엄한미

**기　　획 :** 뮤지엄한미

**후　　원 :** (재)가현문화재단,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관람시간 :** 화-일 10:00 ~ 18:00(매주 월요일 휴관)

**관 람 료** :

일반 요금 (본관, 별관 통합권 운영)

| **구분** | **기준** | **요금** |
|---|---|---|
| **성인** | 만 18 세 이상~ 65 세 미만 | 15,000 원 |
| **학생** | 초·중·고(만 7 세 이상~ 18 세 미만) | 7,500 원 |
| **경로** | 만 65 세 이상 | 7,500 원 |
| **종로구민·재직자·재학생** | 종로구 거주자, 종로구 소재 학교 학생 및 직장인 (주소 증빙서류 지참) | 7,500 원 |

무료 관람 대상

- 미취학 아동(만 7 세 미만)
- 국가유공자
- 복지카드 소지자
-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단체 할인

- 성인 10 인 이상 단체일 경우 1 인당 1,000 원 할인
- 중복할인 불가

**문　　의 :** 뮤지엄한미 삼청본관 대표전화 02-733-1315, museum@museumhanmi.or.kr